

7/9/17

설교 제목: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11: 1-22

-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 11: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 (히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절관주** 왕하 2:16, 왕하 2:17
-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 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히브리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희생 제사에 대해 설명한 후 10 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굳게 잡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인내하여 견딤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둘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이어 11 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첫 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바로 와 닿지는 않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상반부와 하반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반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실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번역된 '히포스타시스'는 '자신감 confidence' '확신 convic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본질 Nature' '존재 being'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실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주관적인 확신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실재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구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관적인 확신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구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실재라는 관점으로 보면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적인 형태나 증거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 1 절이 말하는 믿음은 이중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전자? 후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서를 쓰면서 본문에서 사용한 '바라다'는 뜻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소망'은 항상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 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7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종말론적인 안식의 장소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소망하는 것' 즉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바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실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실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도 각각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확신이나 적극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믿음은 세상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적인 삶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본절의 하반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의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절 하반부는 믿음을 가리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약속이란 미래의 것을 현재에 말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장차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성취되게 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 11: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1 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와는 다른 '인정함을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으며 그런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자는 본장을 통해 먼저 믿음을 정의한 후 믿음을 지킨 선진들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설명함으로써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실례를 들되 3-22 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예로 들은 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23-38 절까지는 2 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인정함을 받은 선진들의 예로 모세를 비롯한 사사와 선지자들 믿음의 용사들의 예를 들고 하나님께 인정 받은 그들의 믿음의 업적들에 관해 설명합니다.

본문 중 3-7 절은 1 절 상반부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까지를 믿는 것입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자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선진으로 아벨과 에녹의 삶을 예로 듭니다.

이들은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자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웠습니다.

아벨과 에녹, 이 둘의 믿음의 삶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은 자인 반면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기자가 믿음의 선진 중 이렇게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산 두 선진들을 앞에 내세운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자는 각각의 형태의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듭니다.

아벨과 에녹은 뒤이어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두 유형,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은 자들과 믿음으로 승리를 이룬 자들의 대표로 내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의 순교적인 죽음은 믿음의 선진들 중 불의한 자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의 모범으로, 반면에 에녹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룬 자들의 모범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 11: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 11: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 11: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 11: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 11: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은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 희롱과 채찍을 받고 옥에 갇히며 톱으로 켜이며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만을 언급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비록 아벨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산 자입니다.

아벨의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승리한 것입니다.

아벨은 진정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있으며 여전히 살아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노라면 믿는다는 이유로 아벨과 같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에녹같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면이라도 그것이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되어야만 믿음의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기자는 이어서 노아의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한 순종을 언급합니다.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을 통한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00 년 후에 있을 당장은 보이지 않는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시적인 형태인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노아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과 순종은 그의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노아의 믿음과 같아야만 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오히려 약속받은 상으로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